

시장·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은 시장·군수가 직접 결정

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(☎ 044-201-3709)

▶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.

• 지금까지는 시장·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은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하여 왔으나, 2014년 1월부터 시장·군수가 직접 결정함으로써 결정신청 및 검토 단계가 생략되어 수립절차가 대폭 간소화 되었습니다.

- 이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이 줄어들고 수립기간도 대폭 단축되어 지역발전과 기업투자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.

- 또한, 당해 지역여건 등을 잘 알고 있는 시장·군수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직접 수립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 확립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☞ (참고) 국토교통부 홈페이지>국토교통뉴스>보도자료>개발사업 추진절차 단축된다

<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 간소화>

▶ 추진배경 :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를 간소화

▶ 주요내용

①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권한 기초지자체 이양(도지사 → 시장·군수)

▶ 시행일 : 2014.1. (국토계획법 개정 2013.7)